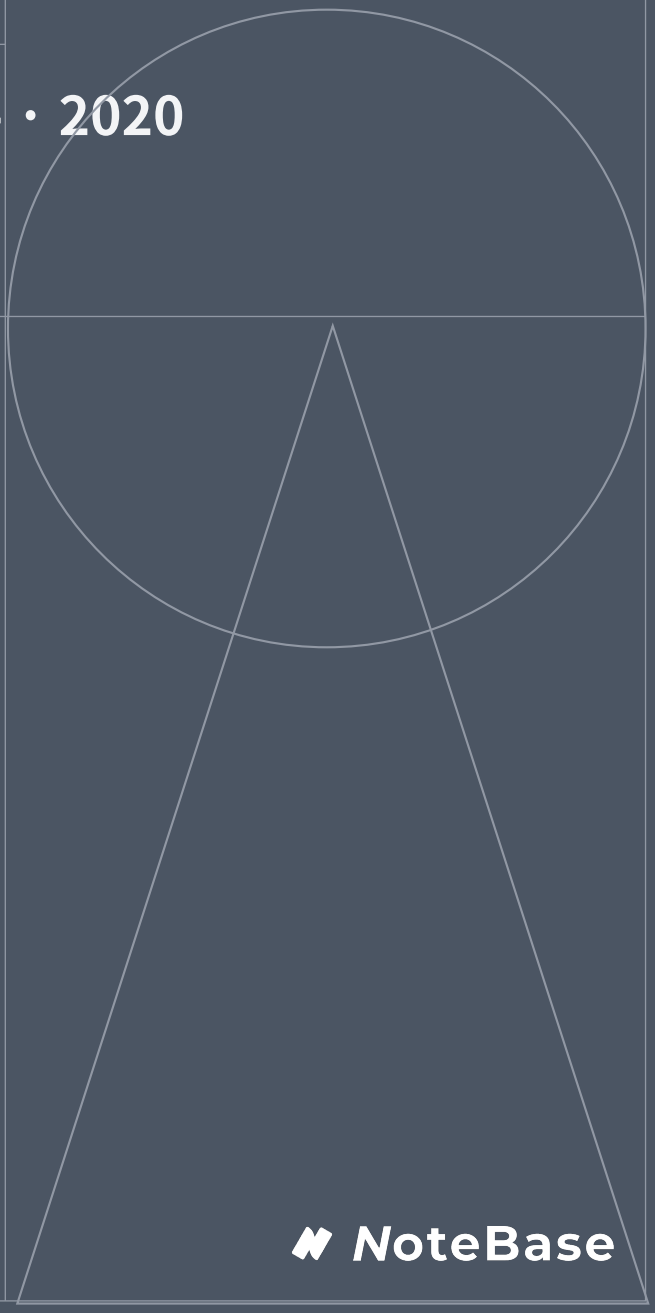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노무사 · 경영학개론 · 2020



NoteBas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노무사 · 경영학개론 · 2020

전문직/노무사 · 경영학개론 · 2020

문 101. 페로우(C. Perrow)가 제시한 기술 분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술복잡성
ㄴ. 과업다양성
ㄷ. 상호의존성
ㄹ. 과업정체성
ㅁ. 문제분석 가능성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ㄴ, ㅁ
④ ㄷ, ㅁ
⑤ ㄱ,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페로우의 기술 분류를 이루는 두 기준인 과업다양성과 문제분석 가능성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페로우는 조직의 기술을 과업다양성과 문제분석 가능성이라는 두 차원으로 분류한다.
과업다양성은 업무 수행 중 예외적이거나 새로운 문제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뜻한다.
문제분석 가능성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정해진 절차나 분석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두 기준의 조합에 따라 기술은 일상적 기술, 공학적 기술, 장인 기술, 비일상적 기술로 구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ㄴ의 과업다양성은 맞지만, ㄱ의 기술복잡성은 페로우가 제시한 두 분류 기준이 아니다. 틀린 ㄱ을 ㅁ의 문제분석 가능성으로 고치면 'ㄴ, ㅁ'이 된다.
② X — ㄴ의 과업다양성은 맞지만, ㄹ의 과업정체성은 직무특성모형에서 다루는 직무특성으로서 페로우의 기술분류 기준이 아니다. 틀린 ㄹ을 ㅁ으로 고치면 'ㄴ, ㅁ'이 된다.
③ O — ㄴ의 과업다양성과 ㅁ의 문제분석 가능성이 페로우가 기술을 분류할 때 사용한 두 기준이다.
④ X — ㅁ의 문제분석 가능성은 맞지만, ㄷ의 상호의존성은 페로우의 두 분류 기준이 아니다. 틀린 ㄷ을 ㄴ의 과업다양성으로 고치면 'ㄴ, ㅁ'이 된다.
⑤ X — ㄱ의 기술복잡성, ㄷ의 상호의존성, ㄹ의 과업정체성은 모두 페로우의 두 분류 기준이 아니다. 올바른 조합은 'ㄴ, ㅁ'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기술복잡성·상호의존성은 조직기술론에서, 과업정체성은 직무설계론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럴듯한 용어이다. 그러나 페로우의 기준은 기술의 복잡성 일반이 아니라 '예외가 얼마나 다양한가'와 '문제를 분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페로우가 나오면 업무 중 예외의 수를 묻는 과업다양성과 해결 절차의 명확성을 묻는 문제분석 가능성의 두 축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페로우 = 과업은 얼마나 다양한가 + 문제는 얼마나 분석 가능한가.

NoteBase

문 102. (주)한국은 정부의 대규모 사업에 참여하면서 다수 기업과 공동출자를 하고자 한다. 이 전략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① 우회전략(turnaround strategy)
② 집중전략(concentration strategy)
③ 프랜차이징(franchising)
④ 컨소시엄(consortium)
⑤ 포획전략(captive strategy)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여러 기업이 대규모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출자하는 사례에 알맞은 전략 유형을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핵심 사실 1: (주)한국이 정부의 대규모 사업에 참여한다.
핵심 사실 2: 한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지 않고 다수 기업과 공동출자한다.
판단에 중요한 조건: 여러 기업이 자금과 역량을 결합하여 특정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한다는 점이다.

핵심 개념

컨소시엄은 둘 이상의 기업이 대규모 사업이나 특정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금·기술·위험을 분담하는 기업 연합이다.
이 사례는 다수 기업의 공동출자를 통해 대규모 정부 사업에 참여하므로 컨소시엄에 해당한다.

적용 기준

여러 독립 기업이 특정 대규모 사업을 위해 공동출자하고 자원과 위험을 분담하는지를 확인한다.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면 컨소시엄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우회전략이라는 표현은 이 사례에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턴어라운드 전략은 경영성과가 악화된 기업이 비용 절감, 구조조정, 사업 재편 등을 통해 회생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② X — 집중전략이라는 표현은 이 사례에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집중전략은 기업의 자원과 역량을 특정 제품·시장·사업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이다.
③ X — 프랜차이징이라는 표현은 이 사례에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프랜차이징은 가맹본부가 상표와 영업방식 등을 가맹점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 방식이다.
④ O — 컨소시엄은 여러 기업이 대규모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출자하고 자원과 위험을 분담하는 연합이다. 다수 기업과 공동출자하여 정부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례와 일치한다.
⑤ X — 포획전략이라는 표현은 이 사례에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포획전략은 기업이 생존의 안정성을 얻기 위해 특정한 강한 기업과 장기적으로 결속하고 그 기업에 높은 의존관계를 형성하는 전략이다.

오답 포인트

정부 사업이라는 단서보다 '다수 기업과 공동출자'라는 표현이 결정적이다. 특정 분야에 역량을 모은다는 의미의 집중전략과 여러 독립 기업이 하나의 사업을 위해 연합한다는 의미의 컨소시엄을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에서 참여 기업의 수, 협력 목적, 공동출자 여부를 확인한다. 여러 기업이 특정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해 공동출자하고 위험을 분담하면 컨소시엄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대규모 프로젝트·다수 기업·공동출자는 컨소시엄이다.

NoteBase

문 103. 메트릭스 조직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성원들 간 갈등해결 용이

② 환경 불확실성에 신속한 대응

③ 인적자원의 유연한 활용

④ 제품 다양성 확보

⑤ 구성원들의 역량향상 기회 제공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메트릭스 조직의 이중 권한 구조가 주는 장점과 그 구조에서 생기는 갈등이라는 단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메트릭스 조직은 기능별 조직과 제품·프로젝트별 조직을 결합하여 구성원이 기능 관리자와 제품·프로젝트 관리자의 지휘를 함께 받는 조직이다.
장점은 전문 인력의 유연한 공유,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다양한 제품·프로젝트의 동시 수행, 구성원의 폭넓은 경험과 역량 개발이다.
단점은 이중 명령과 권한의 중첩 때문에 역할이 모호해지고 관리자 또는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구성원들 간 갈등해결 용이'는 장점이 아니다. 이중 지휘체계에서는 기능 부문과 제품·프로젝트 부문의 요구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갈등의 발생과 조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올바르게는 '구성원 및 관리자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이다.

② O
기능과 제품·프로젝트의 관점을 함께 활용하고 필요한 전문 인력을 빠르게 배치할 수 있으므로 환경 불확실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③ O
전문 인력을 여러 제품이나 프로젝트에 필요에 따라 배치하고 공유할 수 있으므로 인적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④ O
기능별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여러 제품·프로젝트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으므로 제품 다양성에 대응하기에 유리하다.

⑤ O
구성원은 기능 부문의 전문 업무와 제품·프로젝트 업무를 함께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과 협업하므로 역량을 넓힐 기회를 얻는다.

오답 포인트

메트릭스 조직이 부문 간 협업을 촉진한다는 점을 '갈등해결이 쉽다'는 뜻으로 확대하면 ①을 장점으로 오인하기 쉽다. 협업 기회가 많다는 것과 갈등이 적다는 것은 다르며, 이중 권한은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문 인력 공유·환경 대응·제품 및 프로젝트 다양성·역량 개발은 장점으로 판단한다. 이중 명령·권한 충돌·역할 모호성·갈등 증가가 나오면 단점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메트릭스 조직은 자원 활용은 유연하지만 이중 지휘로 갈등은 커질 수 있다.

NoteBase

문 104.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① 태업

② 단체교섭

③ 부당노동행위

④ 노동쟁의

⑤ 준법투쟁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 행위와 근로자·노동조합 측의 쟁의·교섭 활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가입·활동이나 단체교섭 등 노동3권의 행사를 침해하는 법률상 금지행위이다.

핵심 구분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다'는 주체와 행위가 함께 제시되면 부당노동행위를 가리킨다. 반면 태업·단체교섭·노동쟁의·준법투쟁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측의 활동이나 노사 간 분쟁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태업은 근로자들이 작업 속도나 능률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쟁의행위의 한 형태이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틀린 표현: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 방해를 '태업'이라고 한 부분. 올바른 표현: 태업은 근로자 측이 작업 능률을 낮추는 집단적 노무 제공 방식이다.
② X —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활동이므로 사용자에 의한 방해행위 자체를 뜻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 방해를 '단체교섭'이라고 한 부분. 올바른 표현: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하는 활동이다.
③ O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직·운영이나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④ X — 노동쟁의는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에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 상태이므로 사용자의 방해행위를 뜻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 방해를 '노동쟁의'라고 한 부분. 올바른 표현: 노동쟁의는 노사 간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 상태이다.
⑤ X — 준법투쟁은 근로자들이 법령·취업규칙·안전수칙 등을 엄격히 지키는 방식으로 업무의 정상적 능률에 영향을 주는 집단적 행동을 가리키므로 사용자의 방해행위가 아니다. 틀린 표현: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 방해를 '준법투쟁'이라고 한 부분. 올바른 표현: 준법투쟁은 근로자 측이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집단적 행동이다.

오답 포인트

'노동조합과 관련된 행위'라는 공통점만 보고 태업·단체교섭·노동쟁의·준법투쟁을 고르면 안 된다. 이 문항의 결정적 단서는 '사용자가'와 '정당한 활동을 방해'이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침해행위를 함께 나타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행위의 주체를 확인한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교섭·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유형이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다. 근로자 측의 집단행동인지, 노사 간 교섭 또는 분쟁 상태인지도 함께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사용자의 노조 방해는 부당노동행위, 근로자 측의 행동은 태업·준법투쟁이다.

NoteBase

문 105. 하우스(R. House)가 제시한 경로-목표이론의 리더십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권한위임적 리더십
② 지시적 리더십
③ 지원적 리더십
④ 성취지향적 리더십
⑤ 참가적 리더십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하우스의 경로-목표이론이 제시한 네 가지 리더십 유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경로-목표이론은 리더가 부하의 특성과 과업 환경에 맞게 행동하여 목표에 이르는 경로를 분명하게 하고 보상의 매력을 높인다고 본다.
하우스가 제시한 리더십 유형은 지시적·지원적·참가적·성취지향적 리더십이다.
지시적 리더십: 해야 할 일, 절차, 일정과 기대 수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지원적 리더십: 부하의 복지와 욕구에 관심을 보이고 친화적인 근무 분위기를 조성한다.
참가적 리더십: 의사결정 전에 부하의 의견과 제안을 구한다.
성취지향적 리더십: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높은 성과 달성을 기대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권한위임적 리더십은 하우스가 제시한 네 가지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문제의 정답이다. 이 표현을 하우스의 유형으로 고치면 지시적·지원적·참가적·성취지향적 리더십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② X — 지시적 리더십은 과업의 내용과 수행 방법, 일정 및 기대 수준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 유형으로 하우스의 분류에 포함된다.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한다'가 올바른 판단이다.
③ X — 지원적 리더십은 부하의 욕구와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친화적으로 대하는 유형으로 하우스의 분류에 포함된다.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한다'가 올바른 판단이다.
④ X — 성취지향적 리더십은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부하가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유형으로 하우스의 분류에 포함된다.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한다'가 올바른 판단이다.
⑤ X — 참가적 리더십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하의 의견과 제안을 반영하는 유형으로 하우스의 분류에 포함된다.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한다'가 올바른 판단이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①의 권한위임적 리더십도 일반적인 리더십 행동을 나타내는 그럴듯한 용어이지만, 하우스의 경로-목표이론이 제시한 네 유형의 명칭은 아니다. 또한 문제의 부정형 표현인 '해당하지 않는 것'을 놓치면 실제 네 유형인 ②~⑤를 고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하우스의 경로-목표이론이 나오면 '지시·지원·참가·성취지향'의 네 유형을 먼저 떠올리고, 이 목록에 없는 명칭을 배제한다.

암기 포인트

하우스의 네 유형은 '지·지·참·성', 즉 지시적·지원적·참가적·성취지향적 리더십이다.

NoteBase

문 106. 구성원들 간 의사소통이 강력한 특정 리더에게 집중되는 유형은?

① 원형

② Y자형

③ 수레바퀴형

④ 사슬형

⑤ 전체연결형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집단 의사소통 네트워크의 연결 구조와 의사소통이 특정 리더에게 집중되는 정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레바퀴형은 모든 구성원이 중심 인물을 거쳐 의사소통하는 고도로 집권화된 구조이다. 중심 인물이 정보를 모으고 전달하므로 강력한 특정 리더에게 의사소통이 집중된다.
원형은 각 구성원이 양옆 구성원과 연결되고, Y자형은 사슬의 일부가 갈라진 구조이다. 사슬형은 구성원이 일렬로 연결되며, 전체연결형은 모든 구성원이 서로 직접 연결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원형이라는 연결이 틀렸다. 원형은 각 구성원이 양옆의 구성원과 의사소통하므로 특정한 한 사람에게 모든 의사소통이 집중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구성원들이 고리 모양으로 연결된 분권적 네트워크이다.
② X — Y자형이라는 연결이 틀렸다. Y자형은 사슬형의 일부가 갈라진 구조로 어느 정도 집권성이 있지만, 모든 구성원의 의사소통이 강력한 한 리더에게 집중되는 전형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사슬의 중간 지점에서 연결이 한 갈래 더 분기된 네트워크이다.
③ O — 수레바퀴형은 주변 구성원들이 중심 인물과만 직접 연결되는 구조이다. 정보와 의사결정이 중심의 특정 리더에게 집중되므로 문제의 설명에 해당한다.
④ X — 사슬형이라는 연결이 틀렸다. 사슬형은 구성원들이 직선으로 차례대로 연결되어 정보가 인접한 구성원을 거쳐 전달된다. 올바르게는 공식적인 계층을 따라 순차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네트워크이다.
⑤ X — 전체연결형이라는 연결이 틀렸다. 전체연결형은 모든 구성원이 서로 직접 의사소통하므로 특정 리더에게 의사소통이 집중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구성원 간 상호작용이 가장 폭넓은 분권적 네트워크이다.

오답 포인트

Y자형도 연결의 중심점이 있어 수레바퀴형과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 표현은 '강력한 특정 리더에게 집중'이며, 모든 주변 구성원이 한 중심 인물과 연결되는 수레바퀴형을 가리킨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결선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모이고 정보가 그 사람을 거쳐야 하면 수레바퀴형으로 판단한다.
모두가 서로 직접 연결되면 전체연결형, 양옆과 고리처럼 연결되면 원형, 일렬이면 사슬형, 일렬 구조에서 가지가 갈라지면 Y자형이다.

암기 포인트

수레바퀴의 축은 하나이다. 의사소통이 한 리더에게 집중되면 수레바퀴형이다.

NoteBase

문 107.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서 제1의 책임에 해당하는 것은?

① 법적 책임
② 경제적 책임
③ 윤리적 책임
④ 자선적 책임
⑤ 환경적 책임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으로 구분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제1의 책임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제적 책임은 소비자가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윤을 창출하여 기업의 존속 기반을 마련하는 책임이다.
네 책임의 기본 순서는 경제적 책임 → 법적 책임 → 윤리적 책임 → 자선적 책임이다. 경제적 책임이 토대이며, 그 위에 법 준수·윤리적 행동·자발적 사회공헌의 책임이 더해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법적 책임은 기업이 법과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제2의 책임이다. 틀린 표현은 '제1의 책임으로서 법적 책임'이며, 올바르게는 제1의 책임이 경제적 책임이다.

② O
경제적 책임은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윤을 확보하여 존속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므로 제1의 책임에 해당한다.

③ X
윤리적 책임은 법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사회가 기대하는 공정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제3의 책임이다. 틀린 표현은 '제1의 책임으로서 윤리적 책임'이며, 올바르게는 제1의 책임이 경제적 책임이다.

④ X
자선적 책임은 기부나 사회공헌처럼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제4의 책임이다. 틀린 표현은 '제1의 책임으로서 자선적 책임'이며, 올바르게는 제1의 책임이 경제적 책임이다.

⑤ X
환경적 책임은 이 네 단계에서 별도의 제1 책임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환경 관련 법 준수나 윤리적 경영 등의 형태로 다루어질 수 있다. 틀린 표현은 '제1의 책임으로서 환경적 책임'이며, 올바르게는 제1의 책임이 경제적 책임이다.

오답 포인트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 때문에 윤리적 책임이나 자선적 책임을 먼저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이 분류는 기업이 먼저 경제적으로 존속해야 나머지 책임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므로 경제적 책임을 토대이자 제1의 책임으로 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1의 책임' 또는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기업의 생산·이윤·존속 기능을 나타내는 경제적 책임을 선택한다. 이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의 순서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경제가 토대, 그 위에 법·윤리·자선이 놓인다.

NoteBase

문 108. 파스칼(R. Pascale)과 피터스(T. Peters)의 조직문화 7S 중 다른 요소들을 연결시켜 주는 핵심적인 요소는?

① 전략(strategy)
② 관리기술(skill)
③ 공유가치(shared value)
④ 관리시스템(system)
⑤ 구성원(staff)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파스칼과 피터스의 7S 모형에서 나머지 요소를 서로 연결하고 조직 전체에 공통 방향을 부여하는 중심 요소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7S는 전략(strategy), 구조(structure), 관리시스템(system), 공유가치(shared value), 관리기술(skill), 관리스타일(style), 구성원(staff)으로 이루어진다.
공유가치는 조직 구성원이 함께 받아들이는 핵심 신념과 가치관으로, 다른 6개 요소의 방향과 정합성을 연결하는 7S 모형의 중심 요소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전략(strategy)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과 행동 계획이지만, 다른 요소들을 연결하는 핵심 요소는 아니다. 틀린 부분은 '전략이 핵심적인 연결 요소'라는 판단이며, 올바르게는 공유가치가 핵심적인 연결 요소이다.
② X — 관리기술(skill)은 조직과 구성원이 보유한 핵심 역량을 뜻하지만, 7S 전체를 연결하는 중심 요소는 아니다. 틀린 부분은 '관리기술이 핵심적인 연결 요소'라는 판단이며, 올바르게는 공유가치가 핵심적인 연결 요소이다.
③ O — 공유가치(shared value)는 조직 구성원에게 공통된 신념과 가치관을 제공하여 전략, 구조, 시스템, 관리기술, 관리스타일, 구성원을 서로 연결한다.
④ X — 관리시스템(system)은 의사결정, 평가, 보상 등 조직 운영의 절차와 제도를 뜻하지만, 다른 요소들을 연결하는 핵심 요소는 아니다. 틀린 부분은 '관리시스템이 핵심적인 연결 요소'라는 판단이며, 올바르게는 공유가치가 핵심적인 연결 요소이다.
⑤ X — 구성원(staff)은 조직의 인적 구성과 인력 관리에 관한 요소이지만, 7S 전체를 연결하는 중심 요소는 아니다. 틀린 부분은 '구성원이 핵심적인 연결 요소'라는 판단이며, 올바르게는 공유가치가 핵심적인 연결 요소이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전략이나 관리시스템이 조직 운영에서 중요하다는 점 때문에 이를 중심 요소로 고르기 쉽다. 그러나 문제는 중요도가 아니라 7S의 다른 요소들을 공통된 신념으로 묶어 주는 요소를 묻고 있으므로 공유가치를 선택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7S 문항에서 '중심', '핵심', '다른 요소의 연결', '공통 방향'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공유가치와 연결한다. 나머지 6개 요소는 공유가치를 중심으로 서로 정합성을 이루는 요소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7S의 중심축은 공유가치(shared value)이다.

NoteBase

문 109. 브룸(V. Vroom)이 제시한 기대이론의 작동순서로 올바른 것은?

① 기대감 → 수단성 → 유의성

② 기대감 → 유의성 → 수단성

③ 수단성 → 유의성 → 기대감

④ 유의성 → 수단성 → 기대감

⑤ 유의성 → 기대감 → 수단성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브룸의 기대이론을 구성하는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의 판단 흐름을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기대감 — 자신이 노력하면 필요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 정도이다.
2. 수단성 — 그 성과가 보상이나 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정도이다.
3. 유의성 — 그 보상이나 결과를 개인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뜻한다.

왜 이 순서인가: 먼저 노력과 성과의 연결 가능성을 판단하고, 다음으로 성과와 보상의 연결 가능성을 판단한 뒤, 마지막으로 그 보상의 개인적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기대감 → 수단성 → 유의성은 노력 → 성과 → 보상 → 보상의 가치로 이어지는 기대이론의 판단 흐름과 일치한다.

② X — 기대감 다음에 유의성을 둔 부분이 틀렸다. 성과가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인 수단성을 먼저 판단하므로, 올바르게는 기대감 → 수단성 → 유의성이다.

③ X — 수단성을 기대감보다 앞에 둔 부분이 틀렸다. 성과와 보상의 관계를 판단하기 전에 노력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판단하므로, 올바르게는 기대감 → 수단성 → 유의성이다.

④ X — 유의성에서 시작하여 기대감을 마지막에 둔 부분이 틀렸다. 노력과 성과의 관계부터 판단하므로, 올바르게는 기대감 → 수단성 → 유의성이다.

⑤ X — 유의성을 기대감보다 앞에 둔 부분이 틀렸다. 먼저 노력으로 성과를 낼 가능성, 다음으로 성과가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마지막으로 보상의 가치를 판단하므로, 올바르게는 기대감 → 수단성 → 유의성이다.

오답 포인트

세 요소의 뜻만 외우고 연결 대상을 구분하지 않으면 순서를 바꾸기 쉽다. 기대감은 노력과 성과, 수단성은 성과와 보상, 유의성은 보상과 개인적 가치의 관계라는 점이 핵심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노력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가를 먼저 보고, 그 성과가 보상으로 이어지는가를 본 뒤, 그 보상이 나에게 가치 있는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노력→성과는 기대감, 성과→보상은 수단성, 보상의 가치는 유의성이다.

NoteBase

문 110. MBO에서 목표설정 시 SMART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체적(specific)이어야 한다.

② 측정가능(measurable)하여야 한다.

③ 조직목표와의 일치성(aligned with organizational goals)이 있어야 한다.

④ 현실적이며 결과지향적(realistic and result-oriented)이어야 한다.

⑤ 훈련가능(trainable)하여야 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MBO에서 목표를 효과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SMART 원칙의 구성 요소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MBO는 상급자와 구성원이 합의한 목표를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관리 방식이다.
SMART 목표는 구체적(Specific), 측정가능(Measurable), 조직목표와 일치(Aligned),
현실적·결과지향적(Realistic and Result-oriented), 시간제약적(Time-bound)이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목표는 무엇을 달성할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specific)이어야 한다.
② O — 달성 정도와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측정가능(measurable)해야 한다.
③ O — 개인이나 부서의 목표는 상위 조직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도록 조직목표와 일치(aligned with organizational goals)해야 한다.
④ O —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실제 성과를 지향하도록 현실적이며 결과지향적(realistic and result-oriented)이어야 한다.
⑤ X — 틀린 표현은 '훈련가능(trainable)'이다. SMART의 T는 훈련가능이 아니라 목표 달성의 기한이 정해진 '시간제약적(time-bound)'을 뜻한다.

오답 포인트

⑤의 trainable도 목표관리와 관련 있어 보이지만, SMART에서 T가 가리키는 기준은 훈련 가능성이 아니라 달성 기한의 명확성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의 영문 첫 글자를 S-M-A-R-T에 대응시킨다. 특히 T는 목표에 마감 시점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Time-bound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SMART는 구체성·측정가능성·조직목표와의 일치성·현실성 및 결과지향성·시간제약성이다.

NoteBase

문 111. (주)한국은 10,000원에 상당하는 두루마리 화장지 가격을 9,990원으로 책정하였다. 이러한 가격결정 방법은?

① 단수가격
② 명성가격
③ 총화가격
④ 촉진가격
⑤ 관습가격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가격을 둥근 금액보다 조금 낮게 표시하여 소비자가 실제 차이보다 더 싸다고 느끼게 하는 단수가격을 식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단수가격: 10,000원 대신 9,990원처럼 가격 끝자리를 둥글지 않게 정하여 심리적으로 더 저렴해 보이게 하는 가격결정 방법이다.
명성가격: 높은 가격 자체가 높은 품질·명성의 신호가 되도록 가격을 높게 정하는 방법이다.
총화가격: 여러 제품이나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총액으로 제시하는 방법이다.
촉진가격: 단기간의 판매 촉진을 위해 정상가격보다 낮은 특별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관습가격: 오랫동안 형성된 관습적 가격 수준을 따르는 방법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10,000원보다 10원 낮은 9,990원으로 책정하여 만 원대가 아니라 9천 원대로 인식되게 하므로 단수가격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명성가격'이다. 명성가격은 높은 가격으로 품질이나 지위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방법이며, 제시된 사례는 단수가격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총화가격'이다. 총화가격은 여러 제품이나 서비스를 묶어 하나의 총액으로 제시하는 방법이며, 제시된 사례는 단수가격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촉진가격'이다. 촉진가격은 일정 기간 정상가격보다 낮은 특별가격을 제시하여 판매를 촉진하는 방법이며, 단순히 9,990원처럼 끝자리를 조정한 사례는 단수가격이다.
⑤ X — 틀린 표현은 '관습가격'이다. 관습가격은 시장에서 오랫동안 받아들여진 가격 수준에 맞추는 방법이며, 제시된 사례는 단수가격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가격을 낮췄다는 점만 보고 촉진가격으로 오인하기 쉽다. 이 사례에는 할인 기간이나 정상가격 대비 특별판매라는 조건이 없고, 10,000원을 9,990원으로 바꾼 끝자리 효과가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둥근 가격 바로 아래의 9,990원·19,900원처럼 끝자리를 이용하면 단수가격, 높은 가격으로 품질 이미지를 만들면 명성가격, 여러 상품을 묶으면 총화가격, 한시적 할인으로 판매를 늘리면 촉진가격, 오래 형성된 가격을 따르면 관습가격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둥근 수 바로 아래 가격은 단수가격이다: 10,000원 → 9,990원.

NoteBase

문 112. 마약퇴치 운동과 같이 불건전한 수요를 파괴시키는 데 활용되는 마케팅은?

① 동시화 마케팅(synchro marketing)
② 재마케팅(remarketing)
③ 디마케팅(demarketing)
④ 대항 마케팅(counter marketing)
⑤ 터보 마케팅(turbo marketing)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요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마케팅 관리 과업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마약처럼 사회적으로 유해한 수요 자체를 없애려는 활동은 대항 마케팅에 해당한다.

핵심 개념

동시화 마케팅: 계절·시간대 등에 따라 불규칙하게 변하는 수요의 시기를 조정하여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활동이다. 키워드는 불규칙 수요의 평준화이다.
재마케팅: 감소한 수요를 되살리기 위해 제품의 새로운 용도나 시장을 찾는 활동이다. 키워드는 쇠퇴 수요의 회복이다.
디마케팅: 공급 능력을 초과하는 과잉 수요를 줄이거나 억제하는 활동이다. 키워드는 과잉 수요의 축소이다.
대항 마케팅: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불건전 수요를 제거하려는 활동이다. 키워드는 유해 수요의 파괴이다.
터보 마케팅: 시간 경쟁력을 높여 제품 개발·생산·유통 등의 속도를 신속하게 하는 활동이다. 키워드는 속도와 시간 단축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동시화 마케팅'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동시화 마케팅은 불규칙한 수요의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며, 불건전한 수요를 파괴하는 것은 대항 마케팅이다.
② X — '재마케팅'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재마케팅은 감소한 수요를 다시 활성화하는 것이며, 불건전한 수요를 파괴하는 것은 대항 마케팅이다.
③ X — '디마케팅'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디마케팅은 과잉 수요를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며, 불건전한 수요 자체를 제거하려는 것은 대항 마케팅이다.
④ O — 대항 마케팅은 마약 수요처럼 사회적으로 해로운 불건전 수요를 파괴하거나 제거하려는 마케팅이다.
⑤ X — '터보 마케팅'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터보 마케팅은 시간 단축과 신속한 대응으로 경쟁우위를 얻는 것이며, 불건전한 수요를 파괴하는 것은 대항 마케팅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 디마케팅도 수요를 줄인다는 점 때문에 ④ 대항 마케팅과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디마케팅은 과잉 수요의 양을 줄이는 것이고, 대항 마케팅은 사회적으로 유해한 수요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에서 수요 상태와 목표를 함께 찾는다. '불규칙한 시기 조정'은 동시화 마케팅, '감소한 수요 회복'은 재마케팅, '과잉 수요 축소'는 디마케팅, '불건전 수요 제거'는 대항 마케팅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과잉 수요는 디마케팅으로 줄이고, 유해 수요는 대항 마케팅으로 없앤다.

NoteBase

문 113. 마케팅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차별화 마케팅전략을 도입한다.

② 제품전문화 전략은 표적시장 선정전략의 일종이다.

③ 포지셔닝은 전체 시장을 목표로 하는 마케팅전략이다.

④ 제품의 확장속성이란 판매자가 제공하거나 구매자가 추구하는 본질적 편익을 말한다.

⑤ 시장세분화 전제조건으로서의 실질성이란 세분시장의 구매력 등이 측정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표적시장 선정전략, 포지셔닝, 제품의 수준, 시장세분화 요건 등 마케팅전략의 핵심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차별화 마케팅은 여러 세분시장에 각각 다른 마케팅믹스를 제공하는 전략이므로 일반적으로 비용이 증가한다.
제품전문화는 특정 제품을 여러 고객집단에 판매하는 표적시장 선정전략이다.
포지셔닝은 표적고객의 마음속에 경쟁제품과 구별되는 위치를 형성하는 활동이다.
핵심편익은 구매자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효용이고, 확장제품은 제품에 추가된 서비스와 부가편익이다.
시장세분화의 측정가능성은 규모·구매력 등을 측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 실질성은 세분시장이 충분히 크고 수익성이 있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차별화 마케팅전략을 도입한다'이다. 차별화 마케팅은 세분시장별로 별도의 제품과 마케팅믹스를 설계하므로 비용이 늘기 쉽다. 비용 절감과 규모의 경제를 중시한다면 전체 시장에 하나의 마케팅믹스를 제공하는 비차별화 마케팅이 더 적합하다.
② O. 제품전문화는 하나의 제품을 여러 세분시장에 판매하는 시장범위 결정 방식으로, 표적시장 선정전략의 한 유형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전체 시장을 목표로 하는 마케팅전략'이다. 포지셔닝은 표적고객의 인식 속에 자사 제품이 경쟁제품과 구별되는 위치를 차지하게 하는 활동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확장속성을 '본질적 편익'이라고 한 부분이다. 본질적 편익은 핵심편익이며, 확장제품은 기본적으로 기대되는 제품 수준을 넘어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부가편익을 뜻한다.
⑤ X. 틀린 표현은 실질성을 '구매력 등이 측정가능한 것'이라고 한 부분이다. 이는 측정가능성의 의미이다. 실질성은 해당 세분시장이 별도의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만큼 충분히 크고 수익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제품전문화를 제품전략으로만 보고 표적시장 선정과 무관하다고 판단하기 쉽다. 또한 ⑤는 시장세분화 요건인 측정가능성과 실질성의 정의를 서로 바꾼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략의 명칭보다 판단 기준을 먼저 잡는다. 차별화 여부는 세분시장별 마케팅믹스의 수, 제품전문화는 하나의 제품과 여러 시장의 조합, 포지셔닝은 표적고객의 인식, 측정가능성은 수치 측정 여부, 실질성은 충분한 규모와 수익성 여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제품전문화는 한 제품·여러 시장, 포지셔닝은 고객 마음속 위치, 측정가능성은 잴 수 있음, 실질성은 시장성이 충분함이다.

NoteBase

문 114. 포터(M. Porter)의 가치사슬(value chain)모델에서 주요활동(primary activities)에 해당하는 것은?

① 인적자원관리
② 서비스
③ 기술개발
④ 기획·재무
⑤ 법률자문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포터의 가치사슬에서 고객가치를 직접 창출·전달하는 주요활동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활동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주요활동은 물류투입, 운영, 물류산출, 마케팅·판매, 서비스로 구성된다.
지원활동은 기업하부구조, 인적자원관리, 기술개발, 조달로 구성되며 주요활동의 수행을 뒷받침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인적자원관리는 인력의 채용·교육·보상 등을 통해 가치사슬 전반을 지원하는 지원활동이다. 틀린 표현인 '주요활동'이 아니라 '지원활동'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 서비스는 판매 후 설치·수리·고객지원 등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유지·높이는 주요활동이다.
③ X — 기술개발은 제품과 공정, 정보시스템 등의 개선을 지원하는 지원활동이다. 틀린 표현인 '주요활동'이 아니라 '지원활동'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기획·재무는 조직 전반을 관리하는 기업하부구조에 속하는 지원활동이다. 틀린 표현인 '주요활동'이 아니라 '기업하부구조에 포함되는 지원활동'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법률자문은 조직 전반의 법률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하부구조에 속하는 지원활동이다. 틀린 표현인 '주요활동'이 아니라 '기업하부구조에 포함되는 지원활동'으로 고쳐야 한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서비스'를 인사·재무·법률과 같은 보조 업무라는 일상적 의미의 서비스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함정이다. 가치사슬에서 서비스는 판매 후 고객가치를 유지하는 독립된 주요활동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품·서비스가 고객에게 도달하는 흐름인 투입물류→운영→산출물류→마케팅·판매→서비스는 주요활동으로 판단한다. 인사·기술·조달·기획·재무·법률처럼 그 흐름을 조직 전반에서 뒷받침하면 지원활동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주요활동은 '투입-운영-산출-판매-서비스', 지원활동은 '하부구조-인사-기술-조달'이다.

NoteBase

문 115. 경영정보시스템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은 새로운 방식으로 최대한의 이득을 얻기 위해 기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변경하는 것이다.

②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usiness intelligence)는 사용자가 정보에 기반하여 보다 나은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응용프로그램, 기술 및 데이터 분석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이다.

③ 의사결정지원시스템(decision support system)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자가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④ 위키스(Wikis)는 사용자들이 웹페이지 내용을 쉽게 추가·편집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일종이다.

⑤ 자율컴퓨팅(autonomous computing)은 지리적으로 분산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수많은 컴퓨터와 데이터베이스 등을 고속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경영정보시스템의 주요 용어를 정의와 핵심 기능으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특히 자율컴퓨팅과 그리드 컴퓨팅의 차이를 판단해야 한다.

핵심 개념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BPR)은 성과를 크게 높이기 위해 기존 업무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재설계하는 것이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더 나은 경영 의사결정을 돕는 응용프로그램, 기술, 분석 체계이다.
의사결정지원시스템(DSS)은 데이터와 분석 모형 등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자의 판단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위키는 여러 사용자가 웹페이지의 내용을 공동으로 추가하고 편집할 수 있는 웹사이트이다.
자율컴퓨팅은 사람의 개입을 줄이고 컴퓨팅 시스템이 스스로 구성·복구·최적화·보호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반면 그리드 컴퓨팅은 분산된 컴퓨터 등의 자원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BPR은 더 큰 성과를 얻기 위해 기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고 재설계하는 활동이므로 옳다.
② O — BI는 데이터 분석과 관련 기술·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보에 근거한 경영 의사결정을 지원하므로 옳다.
③ O — DSS는 컴퓨터와 데이터·분석 기능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자가 효과적으로 판단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므로 옳다.
④ O — 위키는 사용자가 웹페이지의 내용을 손쉽게 추가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협업형 웹사이트이므로 옳다.
⑤ X — 틀린 부분은 '자율컴퓨팅'이다. 지리적으로 분산된 컴퓨터와 데이터베이스 등의 자원을 고속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공유하는 것은 그리드 컴퓨팅이다. 자율컴퓨팅은 시스템이 스스로 구성·복구·최적화·보호하도록 하는 컴퓨팅 방식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⑤는 '분산된 자원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공유한다'는 그리드 컴퓨팅의 설명에 자율컴퓨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두 개념 모두 복잡한 컴퓨팅 환경과 관련되지만, 자율컴퓨팅의 핵심은 자기관리이고 그리드 컴퓨팅의 핵심은 분산 자원의 연결·공유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용어를 기능 키워드와 연결한다. 업무 프로세스의 근본적 재설계는 BPR, 데이터 기반 경영 판단은 BI, 의사결정자의 분석 지원은 DSS, 공동 웹 편집은 위키, 시스템의 자기관리는 자율컴퓨팅, 분산 자원의 연결·공유는 그리드 컴퓨팅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자율컴퓨팅은 '스스로 관리', 그리드 컴퓨팅은 '흩어진 자원을 연결·공유'이다.

NoteBase

문 116. 품질의 산포가 우연원인에 의한 것인지, 이상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밝혀주는 역할을 하며, 제조공정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정관리에 이용되는 것은?

① 파레토도
② 관리도
③ 산포도
④ 특성요인도
⑤ 히스토그램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품질관리의 기본 도구 가운데 공정의 산포가 우연원인에 의한 것인지 이상원인에 의한 것인지 판별하는 도구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관리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품질특성의 변화를 중심선과 관리한계선으로 나타내어 공정이 통계적으로 관리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도구이다.
우연원인은 공정에 일상적으로 내재한 작은 변동 요인이고, 이상원인은 설비 이상이나 작업 조건 변화처럼 찾아서 제거할 수 있는 특정 요인이다.
파레토도는 문제 항목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산포도는 두 변수의 관계를 살피며, 특성요인도는 결과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히스토그램은 측정값의 분포 형태를 보여 준다.

선지별 해설

① X — 파레토도는 불량 유형이나 원인을 빈도·손실 등의 크기가 큰 순서로 배열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할 항목을 찾는 도구이다. 문항의 설명을 파레토도라고 본 부분이 틀렸으며, 올바른 명칭은 관리도이다.
② O — 관리도는 시간에 따른 공정 데이터를 관리한계선과 비교하여 산포가 우연원인에 따른 정상적 변동인지, 이상원인에 따른 비정상적 변동인지 판별한다.
③ X — 산포도는 두 변수의 값을 좌표에 점으로 표시하여 두 변수 사이의 관련성이나 상관관계를 살피는 도구이다. 문항의 설명을 산포도라고 본 부분이 틀렸으며, 올바른 명칭은 관리도이다.
④ X — 특성요인도는 품질특성이라는 결과와 그 원인 후보를 사람·기계·재료·방법 등의 범주로 정리하는 원인-결과 도표이다. 문항의 설명을 특성요인도라고 본 부분이 틀렸으며, 올바른 명칭은 관리도이다.
⑤ X — 히스토그램은 측정값을 구간별 도수로 나타내어 분포의 중심, 산포, 치우침 등의 형태를 파악하는 도구이다. 문항의 설명을 히스토그램이라고 본 부분이 틀렸으며, 올바른 명칭은 관리도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히스토그램도 산포를 보여 주므로 ⑤와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히스토그램은 값의 분포 형태를 요약하는 도구이고, 관리도는 시간 순서와 관리한계선을 이용하여 우연원인과 이상원인을 구별하고 공정의 관리 상태를 판단하는 도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제에 '우연원인과 이상원인의 구별', '공정의 관리 상태', '관리한계선'이 제시되면 관리도로 판단한다. '중요한 문제의 우선순위'는 파레토도, '두 변수의 관계'는 산포도, '원인과 결과의 구조화'는 특성요인도, '도수분포의 모양'은 히스토그램에 대응한다.

암기 포인트

관리도는 공정의 이상 신호, 파레토도는 개선 우선순위, 산포도는 변수 간 관계, 특성요인도는 원인 탐색, 히스토그램은 분포 형태이다.

NoteBase

문 117. (주)한국의 연도별 제품 판매량은 다음과 같다. 과거 3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순이동평균법을 적용하였을 때 2020년도의 수요예측량은?

연 도	판매량(개)
2014	2,260
2015	2,090
2016	2,110
2017	2,150
2018	2,310
2019	2,410

① 2,270

② 2,280

③ 2,290

④ 2,300

⑤ 2,31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단순이동평균법에서 예측 시점 직전의 일정 기간 자료만 같은 비중으로 평균하여 다음 기간의 수요예측량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2017년 2,150개, 2018년 2,310개, 2019년 2,410개
구해야 할 값: 과거 3년간의 자료를 이용한 2020년 수요예측량
주의할 조건: 2020년의 직전 3개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판매량만 사용한다.

사용할 공식

2020년 예측량=2017년 판매량+2018년 판매량+2019년 판매량3
단순이동평균법은 선택한 최근 기간의 실제값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므로 최근 3개년 판매량의 산술평균을 구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frac{2,150 + 2,310 + 2,410}{3} = \frac{6,870}{3} = 2,290$

따라서 2020년도의 수요예측량은 2,290개이다.

선지 판단

① X — 2,270은 최근 3개년 판매량의 합계 6,870을 3으로 나눈 값이 아니다. 올바른 예측량은 2,290개이다.
② X — 2,280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산술평균과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 계산하면 2,290개이다.
③ O — 최근 3개년 판매량 2,150개, 2,310개, 2,410개의 평균이 2,290개이므로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④ X — 2,300은 최근 3개년 판매량의 산술평균이 아니다. 합계 6,870을 3으로 나누면 2,290개이다.
⑤ X — 2,310은 2018년의 실제 판매량일 뿐 2020년의 3년 단순이동평균 예측량이 아니다. 올바른 예측량은 2,290개이다.

오답 포인트

‘과거 3년간’을 표의 처음 3개년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예측 대상이 2020년이므로 바로 앞의 2017년, 2018년, 2019년 자료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2,310개는 표에 제시된 실제값이지 세 값의 평균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예측 연도의 바로 전 시점부터 필요한 기간 수만큼 자료를 거꾸로 선택한 뒤, 단순이동평균이면 그 값들의 합계를 기간 수로 나눈다.

암기 포인트

3년 단순이동평균은 ‘직전 3개년의 실제값 합계 ÷ 3’이다.

NoteBase

문 118. 선물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화된 공식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② 다수의 불특정 참가자가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한다.

③ 거래대상, 거래단위 등의 거래조건이 표준화되어 있다.

④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려는 제도적 장치로 일일정산, 증거금 등이 있다.

⑤ 반대매매를 통한 중도청산이 어려워 만기일에 실물의 인수·인도가 이루어진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선물거래의 핵심 특징인 거래소 거래, 계약조건의 표준화, 증거금·일일정산, 반대매매를 통한 중도청산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선물거래는 장래의 일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거래하기로 하는 표준화된 계약을 조직화된 거래소에서 매매하는 방식이다.
선물계약은 청산기관이 거래 이행을 관리하고, 증거금과 일일정산으로 결제불이행 위험을 낮춘다. 만기 전에는 기존 포지션과 반대되는 거래를 하여 계약을 쉽게 청산할 수 있으므로 실제 인수·인도까지 이어지는 계약은 일부에 불과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 선물거래는 거래소와 같은 조직화된 공식시장에서 이루어진다.
② O — 거래소의 공개된 시장에서 다수의 불특정 참가자가 매매에 참여할 수 있어 거래 상대방이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거래와 구별된다.
③ O — 기초자산의 규격, 거래단위, 결제월 등 계약조건이 표준화되어 있어 동일한 조건의 계약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④ O — 증거금은 계약 이행을 담보하고, 일일정산은 매일 발생한 손익을 증거금 계좌에 반영하여 결제불이행 위험을 줄인다.
⑤ X — 틀린 표현은 '반대매매를 통한 중도청산이 어려워 만기일에 실물의 인수·인도가 이루어진다'이다. 실제로는 만기 전에 반대매매로 기존 포지션을 쉽게 청산할 수 있으며, 많은 계약이 중도청산되므로 반드시 만기일에 실물의 인수·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답 포인트

⑤는 선물계약의 만기 시 결제 가능성을 모든 계약의 일반적인 처리 방식처럼 바꾼 선지이다. 선물거래에서는 표준화된 계약이 활발히 거래되므로 반대매매에 의한 중도청산이 용이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물거래의 특징은 '거래소·표준화·증거금·일일정산·쉬운 반대매매'로 판단한다. 반대로 개별 협상, 비표준화, 중도청산의 곤란을 강조하면 장외 선도거래의 특징이 섞였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선물은 거래소에서 표준화하여 거래하고, 증거금·일일정산으로 이행을 관리하며, 반대매매로 중도청산하기 쉽다.

NoteBase

문 119. 다음에서 설명하는 투자안의 경제적 평가방법은?

◯ 투자안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기대현금 유입액의 현재가치와 기대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구한다.
◯ 산출된 할인율, 즉 투자수익률을 최소한의 요구수익률인 자본비용 또는 기회비용과 비교하여 투자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① 순현가법
② 수익성지수법
③ 회수기간법
④ 내부수익률법
⑤ 평균회계이익률법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미래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구하고 이를 요구수익률과 비교하는 투자안 평가방법을 식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내부수익률법(IRR법): 투자안의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즉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이다. 내부수익률이 자본비용 또는 기회비용인 요구수익률 이상이면 투자안을 채택한다.
순현가법은 현재가치의 차액, 수익성지수법은 현재가치의 비율, 회수기간법은 투자금 회수에 걸리는 기간, 평균회계이익률법은 회계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순현가법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순현가법은 요구수익률로 할인한 현금유입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 현재가치를 뺀 순현가를 구하고, 그 값이 0 이상인지 판단하는 방법이다. 제시문처럼 두 현재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구하는 방법은 내부수익률법이다.
② X — 수익성지수법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수익성지수법은 현금유입 현재가치를 현금유출 현재가치로 나눈 비율을 구하고, 그 값이 1 이상인지 판단하는 방법이다. 할인율 자체를 산출하는 방법은 내부수익률법이다.
③ X — 회수기간법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회수기간법은 투자로 지출한 자금을 현금유입으로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구하는 방법이다.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은 내부수익률법이다.
④ O — 내부수익률법은 현금유입 현재가치와 현금유출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구한 뒤, 이를 요구수익률인 자본비용 또는 기회비용과 비교한다. 제시문의 두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⑤ X — 평균회계이익률법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평균회계이익률법은 평균 회계이익을 투자액과 비교해 회계적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이다.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구하는 방법은 내부수익률법이다.

오답 포인트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은 모두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이용하므로 혼동하기 쉽다. 순현가법은 요구수익률을 먼저 적용하여 금액인 순현가를 구하지만, 내부수익률법은 순현가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 자체를 구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현재가치 차액’이면 순현가법, ‘현재가치 비율’이면 수익성지수법, ‘회수에 걸리는 기간’이면 회수기간법, ‘현재가치를 같게 하는 할인율’이면 내부수익률법, ‘회계이익 기준 수익률’이면 평균회계이익률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내부수익률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며, 요구수익률과 비교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NoteBase

문 120. (주)한국의 총자산이 40억원, 비유동자산이 25억원, 유동부채가 10억원인 경우 유동비율은?

① 50%

② 70%

③ 100%

④ 150%

⑤ 2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총자산에서 비유동자산을 빼 유동자산을 구한 뒤,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어 유동비율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총자산 40억원, 비유동자산 25억원, 유동부채 10억원이다.
구해야 할 값: 유동비율이다.
주의할 조건: 유동자산이 직접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총자산에서 비유동자산을 빼야 한다.

사용할 공식

유동자산=총자산-비유동자산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00
유동비율은 단기 채무인 유동부채를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으로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유동자산은 40억원 - 25억원 = 15억원이다.
2. 유동비율은 (15억원)/(10억원)× 100=150\%이다.
3. 분자와 분모의 금액 단위가 모두 억원이므로 단위 환산 없이 계산할 수 있다.

선지 판단

① X — 50%는 계산 결과 150%와 다르다. 틀린 표현인 '50%'는 '150%'로 고쳐야 한다.
② X — 70%는 계산 결과 150%와 다르다. 틀린 표현인 '70%'는 '150%'로 고쳐야 한다.
③ X — 100%는 계산 결과 150%와 다르다. 틀린 표현인 '100%'는 '150%'로 고쳐야 한다.
④ O — 유동자산 15억원을 유동부채 10억원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150%이므로 옳다.
⑤ X — 200%는 계산 결과 150%와 다르다. 틀린 표현인 '200%'는 '150%'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총자산 40억원을 곧바로 유동자산으로 보거나, 총자산과 비유동자산의 차이를 구하지 않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또한 유동비율의 분자는 유동자산이고 분모는 유동부채이며, 비율이므로 마지막에 100을 곱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유동자산이 직접 주어졌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총자산에서 비유동자산을 뺀다. 그다음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고 100을 곱한 뒤 금액 단위가 일치하는지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유동비율은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이며, 유동자산은 '총자산 - 비유동자산'이다.

NoteBase

문 121. 자본항목의 분류가 다른 것은?

① 주식할인발행차금

② 감자차손

③ 자기주식

④ 미교부주식배당금

⑤ 자기주식처분이익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자본 항목 중 자본조정과 자본잉여금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본조정은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자본거래 관련 항목을 자본에서 가감하여 표시하는 항목이다. 주식할인발행차금·감자차손·자기주식은 차감 항목이고, 미교부주식배당금은 가산 항목이지만 모두 자본조정에 속한다.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금에 포함되지 않은 잉여금이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에 속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을 액면금액보다 낮게 발행할 때 생기는 차액으로, 자본조정의 차감 항목이다. 이 항목을 분류가 다른 것으로 고르는 것은 틀리며, 올바른 분류는 자본조정이다.

② X
감자차손은 유상감자 등에서 지급한 대가가 감소하는 자본금보다 큰 경우 생기는 손실 성격의 항목으로, 자본조정의 차감 항목이다. 이 항목을 분류가 다른 것으로 고르는 것은 틀리며, 올바른 분류는 자본조정이다.

③ X
자기주식은 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자산이 아니라 자본조정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한다. 이 항목을 분류가 다른 것으로 고르는 것은 틀리며, 올바른 분류는 자본조정이다.

④ X
미교부주식배당금은 주식배당을 결의했지만 아직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금액으로, 자본조정의 가산 항목이다. 차감 항목은 아니지만 ①~③과 마찬가지로 자본조정에 속하므로 분류가 다른 항목이 아니다.

⑤ O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기주식의 처분가액이 장부금액보다 큰 경우 발생하며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자본조정에 속하는 ①~④와 분류가 다르다.

오답 포인트

④ 미교부주식배당금은 자본조정의 가산 항목이고 ①~③은 차감 항목이라는 차이 때문에 ④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문제는 가산·차감 여부가 아니라 자본의 분류를 묻는다. ①~④는 모두 자본조정이고 ⑤만 자본잉여금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항목을 자본금·자본잉여금·자본조정·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한다. 자본조정 안에서 가산 항목과 차감 항목이 다르더라도 상위 분류가 같으면 같은 분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할인발행차금·감자차손·자기주식·미교부주식배당금은 자본조정,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이다.

NoteBase

문 122. 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입채무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말한다.

② 예수금은 거래처나 종업원을 대신하여 납부기관에 납부할 때 소멸하는 부채이다.

③ 미지급금은 비유동자산의 취득 등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를 말한다.

④ 장기차입금의 상환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유동성장기차입금으로 대체하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⑤ 매입채무, 차입금, 선수금, 사채 등은 금융부채에 속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부채를 발생 원인과 결제 방식에 따라 구분하고,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를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생긴 채무이고, 미지급금은 비유동자산 취득 등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생긴 채무이다.
예수금은 타인에게 납부할 금액을 일시적으로 보관한 부채이고, 선수금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대가를 먼저 받아 생긴 비금융부채이다.
금융부채는 계약에 따라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지급할 의무이다. 따라서 매입채무·차입금·사채는 금융부채이지만, 통상 재화나 용역의 제공으로 이행하는 선수금은 금융부채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상품·원재료 매입 등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말한다.
② O — 예수금은 거래처나 종업원에게서 원천징수한 세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일시적으로 보관한 부채로, 해당 금액을 납부기관에 지급하면 소멸한다.
③ O — 미지급금은 비유동자산의 취득처럼 일반적인 영업상의 매입거래가 아닌 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 채무이다.
④ O — 결산일 현재 상환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장기차입금 부분은 유동성장기차입금으로 대체하여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⑤ X — 틀린 표현은 '선수금은 금융부채에 속한다'는 부분이다. 매입채무·차입금·사채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이므로 금융부채이지만, 선수금은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여 의무를 이행하므로 비금융부채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⑤는 열거된 항목이 모두 부채라는 점을 이용해 모두 금융부채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부채인지 여부와 금융부채인지 여부는 다른 분류이며, 선수금의 결제 대상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부채를 무엇으로 결제하는지 확인한다.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이면 금융부채이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여 이행하면 원칙적으로 비금융부채로 판단한다. 또한 정상적인 영업 매입에서 생기면 매입채무, 그 밖의 거래에서 생기면 미지급금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매입채무·차입금·사채는 금융부채, 선수금은 재화·용역으로 갚는 비금융부채이다.

NoteBase

문 123. 재무상태표와 관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ㄴ. 일정시점의 재무상태
ㄷ. 유동성배열법
ㄹ. 일정기간의 경영성과
ㅁ. 자산, 부채 및 자본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고기간의 기준, 구성요소, 작성·표시 특성으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재무상태표는 일정시점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을 나타내어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여 주는 재무제표이며,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유동성배열법과 관련된다.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다.
따라서 재무상태표 관련 항목은 ㄴ, ㄷ, ㅁ이고, ㄱ과 ㄹ은 손익계산서와 관련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ㄴ은 재무상태표와 관련되지만, ㄱ의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은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손익계산서와 관련된다. 틀린 ㄱ을 빼고 ㄷ과 ㅁ을 포함한 'ㄴ, ㄷ, ㅁ'이 옳다.
② X — ㄱ과 ㄹ은 모두 손익계산서와 관련된다. 재무상태표와 관련되는 올바른 조합은 'ㄴ, ㄷ, ㅁ'이다.
③ X — ㄴ과 ㄷ은 재무상태표와 관련되지만, ㄹ의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가 나타내는 정보이다. ㄹ 대신 ㅁ을 넣은 'ㄴ, ㄷ, ㅁ'이 옳다.
④ O — 재무상태표는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고, 자산·부채·자본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유동성배열법을 사용하므로 ㄴ, ㄷ, ㅁ이 모두 관련된다.
⑤ X — ㄷ과 ㅁ은 재무상태표와 관련되지만, ㄹ의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와 관련된다. ㄹ 대신 ㄴ을 넣은 'ㄴ, ㄷ, ㅁ'이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일정시점’과 ‘일정기간’을 바꾸어 판단하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는 재무상태표이고, 일정기간의 경영성과와 수익·비용의 대응은 손익계산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시점과 기간을 구분한다. ‘일정시점·자산·부채·자본·유동성배열’이면 재무상태표로, ‘일정기간·경영성과·수익·비용대응’이면 손익계산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재무상태표는 시점의 자산·부채·자본, 손익계산서는 기간의 수익·비용과 경영성과이다.

NoteBase

문 124. 전자(상)거래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B2E는 기업과 직원 간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② B2C는 소비자와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③ B2B는 기업 내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④ C2C는 기업과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⑤ C2G는 기업 간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전자상거래 유형의 영문 약자가 거래에 참여하는 두 주체 중 누구와 누구를 뜻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B는 기업(Business), C는 소비자(Consumer), E는 직원(Employee), G는 정부(Government)를 뜻한다. B2B는 기업과 기업 간 거래, B2C는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C2C는 소비자와 소비자 간 거래, B2E는 기업과 직원 간 거래, C2G는 소비자와 정부 간 거래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B2E의 B는 기업, E는 직원을 뜻하므로 기업과 직원 간 전자상거래라는 설명이 옳다.
② X — 틀린 표현은 '소비자와 소비자 간'이다. 이는 C2C이며, B2C는 기업과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기업 내'이다. B2B의 두 B는 각각 기업을 뜻하므로 기업과 기업 간 전자상거래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기업과 소비자 간'이다. 이는 B2C이며, C2C는 소비자와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이다.
⑤ X — 틀린 표현은 '기업 간'이다. 이는 B2B이며, C2G는 소비자와 정부 간 전자상거래이다.

오답 포인트

②와 ④는 B2C와 C2C의 거래 주체를 서로 바꾸었고, ⑤는 C2G를 B2B의 뜻으로 바꾸었다. 숫자 2를 기준으로 앞뒤 문자가 각각 어떤 거래 주체인지 대응하지 않으면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약자의 앞 문자와 뒤 문자를 각각 거래 주체로 풀어 쓴 뒤 선지의 두 주체와 대조한다. B는 기업, C는 소비자, E는 직원, G는 정부로 대응한다.

암기 포인트

B는 기업, C는 소비자, E는 직원, G는 정부이며, '2'는 두 주체 사이의 거래를 뜻한다.

NoteBase

문 125. 기업이 미래 의사결정 및 예측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고객, 거래, 상품 등의 데이터와 각종 외부 데이터를 분석하여 숨겨진 패턴이나 규칙을 발견하는 것은?

① 데이터 관리(data management)
②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
③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④ 데이터 정제(data cleaning)
⑤ 데이터 마트(data mart)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기업이 보유한 내·외부 데이터에서 의사결정에 유용한 숨은 패턴이나 규칙을 발견하는 활동이 데이터 마이닝임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데이터 마이닝은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패턴, 관계, 규칙을 찾아내는 활동이다.
데이터 관리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저장·유지·활용하는 전반적인 활동이고, 데이터 무결성은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는 성질이다.
데이터 정제는 오류·중복·누락 등 품질 문제를 찾아 수정하는 과정이며, 데이터 마트는 특정 부서나 업무 목적에 맞추어 구성한 소규모 데이터 저장소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데이터 관리(data management)는 데이터의 수집, 저장, 유지, 통제 등 데이터 자원을 운영하는 전반적인 활동이다. 틀린 표현은 '데이터 관리'이며, 제시된 설명에 맞는 개념은 데이터 마이닝이다.
② X —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은 데이터가 정확하고 일관되며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성질이다. 틀린 표현은 '데이터 무결성'이며, 숨은 패턴이나 규칙을 발견하는 활동은 데이터 마이닝이다.
③ O —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은 고객·거래·상품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미래 의사결정과 예측에 유용한 숨은 패턴이나 규칙을 발견하는 활동이다.
④ X — 데이터 정제(data cleaning)는 잘못된 값, 중복, 누락, 형식 불일치 등을 찾아 수정하거나 제거하여 데이터 품질을 높이는 과정이다. 틀린 표현은 '데이터 정제'이며, 분석을 통해 숨은 패턴이나 규칙을 발견하는 것은 데이터 마이닝이다.
⑤ X — 데이터 마트(data mart)는 특정 부서나 업무 영역의 분석 목적에 맞추어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 둔 소규모 데이터 저장소이다. 틀린 표현은 '데이터 마트'이며, 제시된 활동은 저장소가 아니라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분석 활동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문제에 '데이터'라는 말이 반복되어 데이터 관리·무결성·정제·마트와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분석하여 숨겨진 패턴이나 규칙을 발견한다'는 문구가 데이터 마이닝을 직접 가리키는 결정적 단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패턴·관계·규칙의 발견은 데이터 마이닝, 오류·중복·누락의 수정은 데이터 정제, 정확성과 일관성의 유지는 데이터 무결성, 특정 업무용 저장소는 데이터 마트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마이닝은 숨은 패턴을 캐는 분석, 클리닝은 오류를 씻는 정제, 마트는 목적별 데이터 저장소이다.

NoteBase